


수 학 보 고 서

소 속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파 견 국 가	스페인 사라고사	
파 견 대 학	San jorge	
파 견 기 간	시작	(2023년/1월)
	종료	(2023년/6월)

준비과정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
	대학에 들어가서 가장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여서 주저 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교에서 국제교류프로그램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4학년 1학기에 파견을 간 것이 아쉬울만큼 학생들이 더 많이 국제교류프로그램에 노출된다면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다.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지만) 공지가 너무 늦게 떠서 공지가 뜨고 어학 시험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겐 기회가 많이 없었다. 본인도 결국 어학 성적을 받지 못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면접에서 잘 설명했던 점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파견교 지원 과정
	유럽 국가를 희망했고 그 중에서도 유독 스페인을 희망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만 지원을 하게 된 과정에서 '미디어학부'가 존재하는 학교를 찾았다. 그 중 지역은 처음보지만 미디어학부가 아주 깔끔하게 구성된 학교를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San jorge를 지원했다.
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	
단기비자여서 비자를 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소득 증명과 재정증명 부분에서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는 말을 누가 나한테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버지 이직 과정에서 소득금액증명자와 재정증명자가 달랐는데 이 부분에서 후기나 (대사관은 내 메일을 아직도 읽지 않았다.)사례가	

	<p>없어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다. 사실 다른 사람 말들을 들었을 때에도 그렇게 기준이 깐깐하지 않았다. 항공권은 출발 1개월 전에 끊었는데 더 빨리 끊을 걸 하는 후회가 있다. 또한 왕복으로 끊어서 마지막엔 많이 아쉬웠다. 난 아예 음식을 챙기지 않고 짐도 옷만 넣어 갔는데 본인이 먹을 한식 같은 것을 좀 챙겨가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가장 잘 챙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샤워기필터와 도마. 특히 주방가위를 챙기지 않아서 정말 후회했다.</p>
<p>파견 학교</p>	<p>공항 픽업 & 오리엔테이션</p>
	<p>공항픽업 같은 것은 없고 사라고사로 가기 위해서는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에서 기차를 끊고 가야한다. 역에서 또 택시나 버스를 타고 시내로 이동해야 했다. 사라고사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대체 버스카드를 어디서 사는지부터 전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근데 영어도 안 통해서 초반 적응이 상당히 어려웠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나의 학부를 알려주고 학부 교수님과 짧은 간식타임 그리고 명지대에 5배는 넘는 것 같은 캠퍼스를 둘러봤다.</p>
	<p>수업 & 학교 활동</p>
<p>수업은 영어수업이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교수와 스페인 학생들은 종종 또는 대개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특히 '마리나'라는 교수님 수업에서는 그 과목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업이었음에도, 각종 인종차별과 따돌림을 받았다. 사라고사 학교에는 명지대를 학우를 포함해서 총 5명의 한국인이 있었고 4명이 마리나의 수업을 다른 시간대에 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꼈다. 이 수업에서 교수는 스페인 애들에게 동양 혐오감을 심어주었고, 잘못되고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수업을 했다. 스페인 친구들은 팀플에서 동양인을 종종 배제했으며 스페인어로 소통했다. 정말 집에 가고 싶게 만드는 수업이었다. 나머지 교수님들은 모두 정말 좋았으며 우리를 많이 배려했다. 학교 활동은 수업 말고는 스포츠 활동이 있는데 이것도 교환학생으로 학교를 간 동양인들이 참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p>	

	<p>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p>
	<p>학교 기숙사는 따로 없었다. 각 학부 건물마다 식당, 쉬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 매점이 있었고 학교 캠퍼스 자체가 그냥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겼다.</p>
<p>주변 환경</p>	<p>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p>
	<p>Delicias 지역에는 살지 말라고들 말한다. 가장 위험한 지역이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봐도 왜 살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간다. 위험하다. 거주지를 구할 때 이데알리스타라는 앱으로 구했고 무조건 강 아래(대성당 밑)에 집을 잡아야한다. 강 위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교통이 불편하며 밥집 술집 놀 거리 살 거리 아무것도 없다.</p>
	<p>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p>
	<p>대학은 사라고사에서 셔틀버스를타고 40분 이동해야 나온다. 버스가 종종 우리를 버리고 갔는데 그러면 학교를 갈 방법이 아예 없다. 다음 버스는 다음 수업시간 즈음 오기 때문이다.</p>
<p>비 용</p>	<p>등록금 (해당 학생만)</p>
	<p>명지대학교 등록금을 냈다.</p>
	<p>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p>
	<p>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p>
	<p>보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보다 많이 아팠다. 교재는 없었고 pdf로 수업을 한다. (노트북, 태블릿이 없으면 아예 수업을 참여할 수 없음)</p>

	생활비
	한 달에 집값으로 60만원 (5명이 사는 화장실 2개 집, 그냥 그런 컨디션) 생활비 4~50정도.. 였던 것 같다.
	한달 평균 지출 비용
	100~300 (여행포함)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경험이다.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기억이고 외국에서 홀로 살아가는 부분에서 많이 배우고 느꼈다. 여러 고비들이 있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결국 남은 것들은 다 좋은 경험이다. 여행을 많이 다닌 것이 가장 좋았다. 학교 수업은 한국에 비해 정말 정말 쉬운 편이고 시험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쉬웠던 것 같다. (대형프로젝트가 있었던 과목 기준)	
사진 첨부 (최소 5장)	
	

[별첨] 수학보고서

